



#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BRIEF

2015  
No.42

발행처 | 대전발전연구원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발행인 | 유재일 편집인 | 주혜진 디자인 | 디자인스튜디오203 대전 발행일 | 2015. 6. 30.

6.4 지방선거 1주년 기념

여성 시의원을 만나다

## “시민의 마음을 읽는 생활정치로 보답”



대전발전연구원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는 지난 6월 2일 6.4 지방선거 1주년을 기념해 여성 시의원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자리를 마련했다. 한남대학교 행정학과 원구환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대전시의회 김인식 의장, 구미경, 박상숙, 박정현, 최선희 시의원이 대담자로 참석해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 지방선거 1주년을 맞이하는 소감,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 **원규환** \_한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66 2014년 6.4 지방선거 후 7대 대전광역시의회 1주년 맞이해 여성 시의원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성 시의원 분들의 정치 입문 계기, 지방선거 1주년 소감,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과 앞으로의 계획, 여성 정치인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등에 대해 들어보고자 합니다. 99



● **김인식** \_대전광역시의회 의장

66 작년 7월 의회를 개원하며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 '서민경제 챙기기', '감성으로 소통하기' 세 가치를 약속드렸습니다. 또한 1년 동안 어린이 모의의회 운영, 회의실 개방, 간담회 개최, 의정비 동결 등 '시민과 동행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민의 마음을 읽는 생활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99



● **구미경** \_대전광역시의회 시의원

66 시민에게 봉사해야 한다는 점을 배우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1년이었습니다. 앞으로 장애재활병원학교, 장애인직업학교, 성인 장애인 시설, 농아인을 위한 언어소통 기관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장애인 및 장애인 시설 인식 개선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 잘 살 수 있는 정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9



● **박상숙** \_대전광역시의회 시의원

66 정치에 입문하고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새로운 분야를 경험할 수 있었고,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1년이었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의원들의 역할도 알리고 싶으며, 교육위원으로서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힘써서 대전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9



● **박정현** \_대전광역시의회 시의원

66 지난 1년간 '올해의 정치인'상 수상,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어린이재활병원 설립을 위해 여론 형성을 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앞으로 마을공동체 구축, 대전지방의료원과 어린이재활병원 설립, 통일교육활성화 조례제정, 지역 선순환경제 모델 확립, 여성정치 영역확장 및 여성정치인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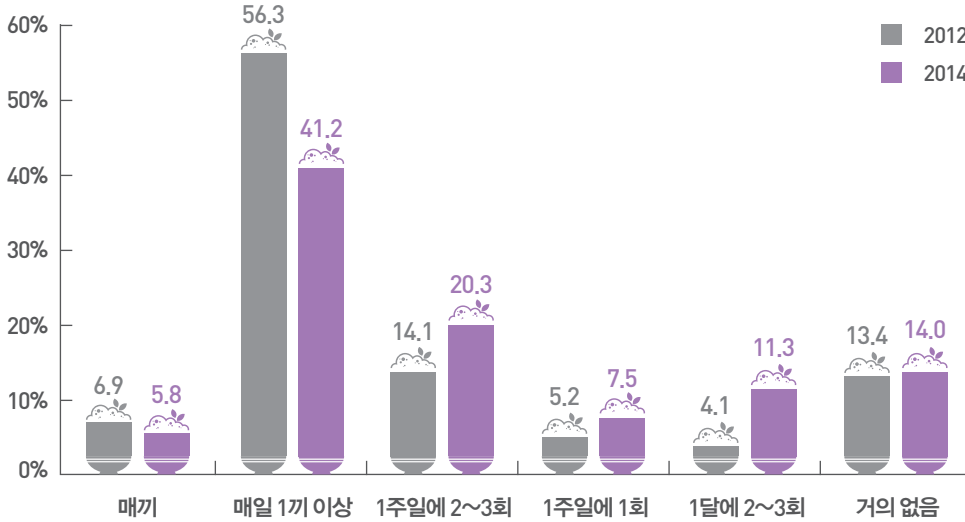


● **최선희** \_대전광역시의회 시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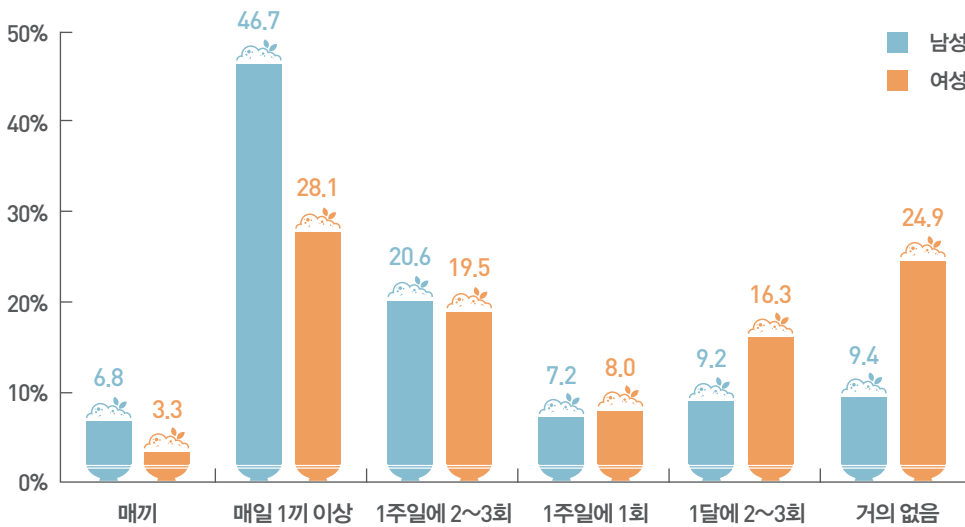
66 지난 1년 동안 의정활동에 대해 공부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했으며 정책감시와 각종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의정활동 기간에는 1년 동안 미비했던 점을 보완해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특히,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과 아이가 행복한 유아교육과정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싶습니다. 99



# 가족과 '삼시세끼' 하시나요?



대전광역시 2014년 사회조사에 의하면 가족과의 주기적인 식사 빈도에 대해 '매일 1끼 이상'이 4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2012년 대비 15.1%p 감소한 수치이다. 이어서 '1주일에 2~3회'(20.3%), '1달에 2~3회'(11.3%), '1주일에 1회'(7.5%), '매끼'(5.8%) 순으로 가족 간의 식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거의 없음'은 14.0%로 나타났다.



2014년 대전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매끼' 가족과 식사한다고 한 남성은 6.8%, 여성은 3.3%로 나타났으며, '매일 1끼 이상'에 응답한 남성은 46.7%, 여성은 28.1%로 남성보다 여성이 가족 간 식사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60세 이상의 10.2%는 '매끼' 가족과 식사를 한다고 응답하였고, 20대 이하의 '거의 없음'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구분	매끼	매일 1끼 이상	1주일에 2~3회	1주일에 1회	1달에 2~3회	거의 없음
15-19세	5.5%	7.2%	24.6%	11.8%	26.8%	24.0%
20-29세	2.2%	15.5%	13.8%	7.8%	29.4%	31.3%
30-39세	4.6%	45.8%	21.1%	7.5%	7.9%	13.2%
40-49세	3.4%	50.0%	25.5%	6.9%	6.6%	7.6%
50-59세	4.8%	44.8%	25.8%	8.2%	8.7%	7.7%
60세	10.2%	37.5%	13.1%	7.1%	13.1%	19.1%

※ 자료출처 : 대전광역시, 2014 대전의 사회지표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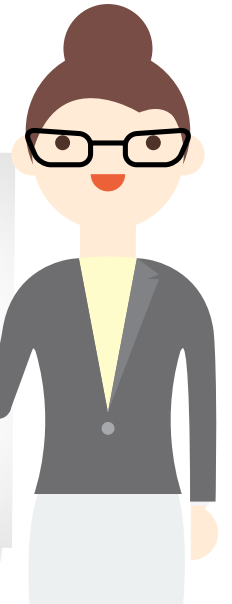
## 2015년도 '찾아가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담당자 교육 실시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는 대전지역 각 자치구청을 대상으로 6월 22일부터 6월 30일 까지 찾아가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수행할 과제담당자가 2015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이해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작성법을 정확히 파악해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수월하게 작성하고자 마련됐으며, 동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청에 소속된 각 50~100여 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약 4시간 동안 실시하는 찾아가는 교육 형태로 진행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이해 및 지표별 작성법',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 간 연계사례 공유'였으며, 교육을 받은 공무원들은 담당한 사업에 대하여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7월 말까지 작성할 예정이다.



## '함께 만들어가는 여성친화도시' 리더십 워크숍 개최

제20회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공무원들의 리더십 고취를 위해 '함께 만들어가는 여성친화도시'를 주제로 여성친화도시 리더십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 일시: 2015년 7월 6일(월) 13:00~17:30
- 장소: 구) 충남도청 소회의실
- 대상: 동구, 대덕구 6~7급 공무원
- 주관: 대전발전연구원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동구청, 대덕구청
- 주최: 대전광역시
- 세부 프로그램



2012년 대덕특구 여성과학인을 위한 리더십 워크숍

시간	내용	발표자
13:00 ~ 13:30	등록	
13:30 ~ 14:30	지역사회정책과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이해	조연숙 (젠더와 정책연구소장)
14:30 ~ 17:30	'오감만족' 여성친화도시 조성 리더되기	이미원 (With One 대표)